

## 종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종강예배가 11월 26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의 말씀은 권연경 교수님(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이 담당하며 주제는 '고백의 언어, 순종의 삶(마 5:20, 23:1-5)'이다. 예배 후에는 예술계 식당에서 단대별로 식사하며 교체하는 시간을 가진다.



**2018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연합 예배**

**고백의 언어,  
순종의 삶**

마태복음 5장 20절, 23장 1-5절

**선교** 권연경 교수님  
(숭실대 기독교학과)

**장소** 문화관 중강당

**일시** 11월 26일 월요일  
늦은 6시

**문의** [snu\\_christianunion](https://www.instagram.com/snu_christianunion)  
서울대 기독교인연합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Seoul National University Christian Union

## 간사칼럼

###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동역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신원식목사이입니다. 저는 오늘 칼럼을 통해서, 저의 구원 간증과 주님께서 주신 동

역자들과 노방 전도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5살 때부터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기타를 배웠고, 대학교에 와서 심리학을,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선교단체에서는 노방 전도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장로회 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중 신대원 1학년 초에 동기 친구가 제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원식아 넌 열정이 넘치는데, 그 열정으로 영혼들을 돕는데 나의 시간을 투자해 주고 싶다. 함께 LDI(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www.ldi.kr) 제자훈련하자." 이렇게 권면해 준 친구에게 감사하기로 하고, 목사가 되려면 정말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LDI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신대원 2학년 때, 드디어 꿈에 그리던 큰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인 영락교회에서 600명의 중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켜 보건대,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마음이 컸습니다. 설교단에서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 삶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없었습니다. 제 삶은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사역을 하니, 곧 제 안에 있는 에너지는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음란의 문제, 시기와 질투의 문제, 교만의 문제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찰나에 2007년 겨울에 LDI 신학생 수련회에서 참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기도회 시간에 내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토해내지 못했던 음란의 죄들을 자백하며, 눈물과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저의 죄를 토해 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죄사함의 확신을 주셨고, 저는 드디어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2007년 6월쯤부터 저는 서울대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로 전도를 나오게 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5살 때쯤, 목회자이신 아버지께서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관악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나중에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동생은 서울대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저는 복음을 전하러 서울대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 즉 제자 삼는 비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제자를 세우는 목회자, 제자 삼는 목사가 되길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신대원 졸업과 동시에 영락교회 중등부의 몇몇 권사님, 집사님의 후원으로 녹두에 자취방을 얻어, 주 5회 이상 서울대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동역자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풀어주신 동역자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캠퍼스에서 제자 삼는 목회를 한다고 하니 처음엔 가족들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기도와 반대로 더욱 강력히 캠퍼스 사역을 반대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일반 목회로 돌아오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지금 돌아켜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시험하셨고,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지상명령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 때가 차매, 부모님들의 원래의 부드러운 마음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기독교 방송 설교를 식사하면서 잠시 켜 놓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목회자들보다 우리 아들이 가장 자랑스럽다. 평생을 사모로 살면서 교회를 돌보다 보니,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주는 삶이 정말로 오늘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와 멘토가 필요하고 제자 삼는 것이 필요함을 설교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도 다음과 같이 격려해주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때로는 너에게 '일반 목회로 돌아와 사역해라',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니.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귀담아 듣지 마렴. 아버지로서 자녀가 고생하길 원하지 않기에 하는 말이었지만, 지금 돌아켜 보니 너의 사역이 정말로 귀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혼도 그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되, 서두르지 마렴. 앞으로 빨리

안 한다고 다그치지 않을게.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이 자랑스럽다." 동생도 저에게 격려해주었습니다. "형, 그동안 결혼 왜 안하냐고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그리고 뭐 결혼해보니까 힘들기도 해. 형이 전도하고 양육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이 감동이야. 형 나도 이제 선교사로 삶을 살고 싶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 우리 딸 대학생 되면, 그때 선교지로 갈라고 아내랑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가족 모두를 저의 가장 큰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동역자들은 멘토들과 멘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학생 때는 CCC 임영규 간사님을, 대학원부터는 LDI 임경철 교수님과 박혜원 교수님을 멘토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리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멘토 분들은 주님이 주신 캠퍼스 선교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 삼는 삶을 사셨습니다. 2018년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대에서 매주 노방전도를 하시고, 제자를 삼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녀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야 하는 상황에도 제자 삼는 삶을 계속 사수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장례 가운데도 제자 삼는 삶을 계속 사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멘토 분들을 통해 제게 공부도, 직장도, 결혼도, 자녀도 그 무엇도 다 제자 삼는 비전에 초점을 맞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노방전도로 만난 사랑 하는 멘티들이 있습니다. 노방에서 만나, 복음을 깨닫고, 전도의 귀함을 알고, 다시 받은 바 사랑을 전하며, 저와 함께 제자를 삼는 멘티들이 있기에 정말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노방전도로 만난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실 2018년 1월부터 저의 몸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왼쪽 팔에 핏줄이 막히고, 잇몸이 아파서 말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사탄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약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플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순간 불만이 확 올라왔지만, 그 순간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그 찰나에 주님은 저에게 에스겔 17장 22-24절의 약속의 말씀과 저를 서울대로 부르신 사명을 떠오르게 하였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원식아, 너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들어서 쓰겠다. 너는 다만 너의 오병이어를 드리면 된다. 내가 너를 도와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후 몸은 아팠지만, 기쁨으로 전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갔습니

## 주요 기사 안내

- 1-2면 간사칼럼 ... 신원식 간사
- 2면 중앙위원의 글 ... 이은진
- 2~3면 학생기자의 글 ... 한상휘
- 3면 학부생의 글 ... 최하민
- 4면 선교단체 소개글 - ECU ... 구자훈  
선교단체 소개글 - ABSK ... 서홍준
- 5면 국제예배 소개글 ... 김병문 교수  
외국인 학생 특별기사 ... Nana Yaw  
Oppong-Yeboah
- 6면 외국인 학생 특별기사 ... 왕순강  
대학원 모임 소식 ... 이순규
- 7면 장래예배 원고문 ... 유은상  
독자기고란
- 8면 2018-2 이모저모

다. 그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실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들을 자를 보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필요한 사람들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중앙도서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제 앞에 서서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전도지를 제가 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 장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읽어보시더니, “목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심하게 치셨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서울대 LDI 모임에, 그리고 저와의 개인양육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까지 연결되고, 이제는 주일 오전에 형제들과 축구교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서울대에서 매주 저와 함께 노방 전도를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

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에게 해 드린 것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다가가던 것밖에 없지만, 때가 차매 형제님은 복음을 받아드리고, 새 생명을 얻어 양육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후 형제님은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었습니다. 성경책을 스스로 샀고, 읽고 궁금한 것을 양육시간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저에게 나눠주면서, 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말씀을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점점 그 말씀을 이해시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형제님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사람들 앞에 밝힙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들 변화된 그 형제를 보면서 놀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인해 형제님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 되셔서, 친히 일하십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을 서울대학교에서 한결같이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제가 성령님만 의지하여, 각 단대와 학과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영적인 세대를 짚추며,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통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원식 간사(LDI)

## 중앙위원의 글

###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재수를 시작할 당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는 동안, 다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처음 몇 달 동안, 제 안에서 넘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기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들로 인해 몇몇 동기들이 저를 싫어하게 되면서 동기들로부터 마음이 상했고 그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무시하고 물어두었던, 과 기도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 부모님에 대한 용서의 문제도 같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서 넘쳐 흐르던 예수님의 사랑은 막혔고, 저는 서원한 것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저는 포기하고 서원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017년 UBF대표(부회장)로서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며 서기연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임에 참석하기 전, 저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서기연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마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 17년도 중앙위원으로 섬겼던, 같은 과 선배인 은지언니로부터 콜링을 받아 18년도 오티기획단으로 서기연과 함께 하게 되었고,

이후 중앙위원으로 서기연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공동체의 핵심 사역은 불신자 전도 사역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억나게 하셨음에도, 저는 처음에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도, 가족도, 친구도 아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아닌, 서로 알아갈 기회가 거의 없고 잠깐 인사를 하는 게 다인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저는 중앙위원의 자리에서 예배 식사분배를 섬기고, 목사님 의견을 하고, 예배 사전 세팅 등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1학년 때 과 기도모임에 갔을 때는 어떤 분께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비록 기본적인 마음이지만,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분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분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적은 일들일지라도 맡기신 일들을 몸으로 하다보니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고, 사실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중앙위원 일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고, 많은 것을 드리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투성이인 제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작은 마음도 받으시고 사용해주셔서 제게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에 참여시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기쁨과 재미도 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켜주시고 기쁨과 재미, 감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앙위원 일을 하는 동안,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서기연에서의 교제와 아침기도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 앞에 우선적으로 나아가게 되다보니, 하나님께서는 정체돼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중앙위원 책모임에서도 <부흥>과 <내가 사랑하는 복음>을 읽으며 저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중요한

영적 통찰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의 부족함을 감당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맡은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해주신 대의원님들 덕분에,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었고, 저도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예배 후 식교제를 담당했을 때 배달시킨 치킨과 피자가 늦게 와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때, 괜찮다고, 치킨집이 잘못했다고 말해주시며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힘들어하거나, 삶나눔 때 제 얘기가 길어져도 묵묵히 들어주며 감당해주는 분들과 일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감당해주고, 좋게 봐주는 분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에 구멍을 많이 냈지만, 혼내지 않고 수습하기를 기다려주고, 그냥 구멍 한 번 낸 채로 넘어가기도 해주며, 허물을 감당해준 분들과 일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다가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가 싫은 행동을 했을 때도 비난하지 않고 감당해주고,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 힘이 되어주는 분들과 일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아침기도회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게 해주시고, 항상 격려와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주고, 겸손하게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언제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주시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시며, 부족함을 감당해주며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은진(전기정보공학부 15)

## 학생기자의 글

### 하나님의 통로 《진리는 나의 빛》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기독교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 한상휘입니다. 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의원 분들 혹은 《진리는 나의 빛》 소식지에 기고를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일 텐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도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로 섬기게 된지 어느덧 5학기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학기를 끝으로 졸업을 앞둔 저는 학생기자 직분을 다음 학생으로 넘겨주게 되어, 5학기 만에 처음으로 《진리는 나의 빛》 소식지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글솜씨는 좋지 않지만, 이 글

을 통해 서울대학교 복음화와 《진리는 나의 빛》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질 분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 서울대학교기독교인연합

학생기자를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점들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제가 학생기자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 1학기에 저희 동아리(예수전도단) 대표를 대신하여 한 번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의원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나이도 어리고, 서기연에 대해 아는 것도, 더욱이 대의원 중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날 회의에서 느꼈던 점은 대의원들 사이에 하나됨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가본 회의였기에 제가 정확히 판단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날 대의원분들이 각자 학업과 선교단체 생활로 바빠서인지 서기연 차원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

체적으로 알려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서기연이 어떤 단체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기연의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왔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여 서기연 신앙 OT 준비팀도 했고, 예수전도단에서도 빌더를 하며 열심히 캠퍼스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서기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더욱이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제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서기연에 대한 관심, 서울대 복음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서울대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감사하게도 시기가 적절하게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 제의를 받게 되었고, 서기연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서기연 내에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기도의 끈

학생기자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진리는 나의 빛》에 대한 나름 불타는 열정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갈수록 서기연과 《진리는 나의 빛》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갔고, 5학기 차가 된 지금은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를 그만두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로 《진리는 나의 빛》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학생기자를 하며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가끔씩 마감기한을 놓쳐서 용서를 구하시는 대의원분들 혹은 기고자 분들의 인간미를 보게 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서울대학교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으며, 다양한 간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0년대 이후 캠퍼스의 분위기가 많이 삭막해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문화가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점차 캠퍼스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불어 예전과 달리 요즘엔 학교 학점만으로는 부족해 스펙을 위해 각종 자격증과 공인성적, 인턴 및 봉사활동 경험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우리 기독교인 학생들도 바쁨 속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캠퍼스에는 하나님을 알고, 당신을 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가기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이 더 귀해 시간의 십일조를 내어 주님께 드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모임을 진행해오는 단체들의 글, 방학마다 스펙을 쌓기보다 선교와 수련회를 떠나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담은 간증문, 우리보다 먼저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선배들의 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교수님들과 간사님들의 글들은 제게 도전과 용기를 주면서도 때로는 잔잔한 감동으로 위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알게 되고, 학생기자라는 직분 덕분에 서울대학교 내 기독교 단체 혹은 개인이 어떤 학기에는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찾게 되어 서울대학교 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매학기 볼 수 있다는 점이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로 섬기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학생기자가 아니었다면 2016년에 가졌던 서기연에 대한 열정은 해당 학기 종강이 오기도 전에 학업에 묻힐 수 있었겠지만, 학생기자라는 직분을 통해 저는 서기연에 대한 관심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소식지가 개·종강 예배 때마다 형식적으로 받는 주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1학년 때는 소식지를 받고 글이 너무 길어 8면의 1학기 이모저모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생기신다면 《진리는 나의 빛》만큼 귀한 소식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통해 우리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각 기독교단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학기마다 학내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 단체와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도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으며, 기고자 혹은 단체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서기연이 하나 되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진리는 나의 빛》 소식지가 서기연이 하나 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소식지를 보시는 독자 분들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리는 나의 빛》 소식지는 독자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독자 분들께 더욱 친근히 다가가고, 관심 있는 특집 기사들을 많이 내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진리는 나의 빛》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소식지가 되기 위해선 저희 소식지 관계자뿐 아니라 독자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진리는 나의 빛》을 더욱 풍성한 기사들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를 사랑하셔서 많은 간증을 주셨고, 앞으로는 더 많은 감사제목과 간증으로 《진리는 나의 빛》을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휘(화학교육 15, 학생기자)

### 학부생의 글

## 한국에서의 감사



중국에 평생 살면서 다녔던 '고향교회'를 떠나야한다는 생각은 귀국을 앞둔 나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보낸 마지막 한 달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한국으로 떠나기까지 한 달을 앞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아쉬워해주는 사람들도,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내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며 기도해준다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 진심어린 조언들도 들었는데, 그중에서 신앙과 학업에 대한 조언들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교회선생님들께서 이단 조심하고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 만났으면 좋겠다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은 알았으나 여러분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말들을 쉽게 흘려보냈다. 하지만 한국에서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 경험을 하면서 그때 흘려보냈던 것 같았던 말씀들이 종종 떠올랐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깨닫게 되었다.

한국이라는 '외국' 땅이 처음에 낯설게 느껴졌지만 2월 달에 서기연이라는 공동체를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잠깐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하철 앞에서 나눠주는 전단지과 길거리에서 부탁하는 여러 사인이 이단과 관련 있음을 알게 되고, 길가에서 신천지 단체에서 그랬다는 벽화들을 보게 되면서 내 생각이 너무 단순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루는 관공서에서 기숙사로 걸어가는 길에 발표 평가를 해달라는 두 여학생들의 발표를 듣게 되었는데, 뒤늦게야 그분들이 이단 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교활동을 금지하는 나라에서 온 나는 한국에서의 활발한 이단 포교활동이 무서웠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하게 되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기연 신앙오티에서 받아들여 지역교회 목적이 있었고, 선배들이 교회를 찾는다는데 여러 교회를 소개해주셔서 교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덕분에 여러 교회에 다녀볼 수 있었으나 어느 교회에 정착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확신이 들지 않다 보니 매주 그 다음 주에는 어

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교회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불안해져 갔다. 옛 교회가 그리워지기도 했다.

학업에 있어서도 적응의 과정이 필요했다. 친한 사람과 같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거의 독강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뿐이거나 아예 없어서 대부분 혼자 전전공공해야 했다. 내가 헤매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하는 학우들을 보면서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 주변에는 항상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2월 달에 마커스예배 아웃팅과 신앙오티를 통해 알게 된 선배들과 밥약을 하면서 조언을 많이 들었다. 교회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을 때 선배들은 좋은 교회에 얼른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겠다고 하셨다. 몇몇 분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소개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나는 지금 교회에 정착해서 잘 다니고 있다. 신앙오티에서 알게 된 사회기연과는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대학에 처음 와서 느꼈던 혼란들은 나와 같은 단과대에 속해있는 사회기연과 얘기하면서 많이 해결되었던 것 같다. 내 곁에 신앙과 사회를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학우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도 의지가 된다. 그들의 존재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학업적으로도 용기를 얻고 새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한참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던 중 '기독교인입생과 교수의 만남'에 갔었다. 교수님께서 크리스천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역량을 키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음속에 깊게 와닿았다.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온 그 말씀은 기숙사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 뒤로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워도 열심히 해보아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물론 지금도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들이 있고 학내 어딜 가나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서울대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면 내게 남는 것은 결국 '감사'뿐이다. 내게 사회기연을 비롯해서 좋은 신앙의 선배와 친구들을 보내주신 것도, 나를 좋은 교회로 인도해주신 것도, 내게 '기독교인입생과 교수의 만남' 참여의 기회를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지금까지 신앙과 학업 두 가지 모두 포기하지 않고 지켜오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최하민(사회복지 18)

## 선교단체 소개글 - ECU

## 캠퍼스 복음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



안녕하세요, 서울대 학우 여러분들! 저는 기독교 동아리 ECU 대표를 맡고 있는 14학번 구자훈이라고 합니다.

ECU는 'Elgrace Campus Union'의 약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주은혜교회에서 시작된 캠퍼스 선교단체입니다. 2010년에 고려대에서 처음 캠퍼스모임이 만들어졌고 서울대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지역의 10여개 대학에서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모임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모임일 것 같네요. 서울대기독교인연합에는 올해 2018년에 준회원 등록 신청을 해서 2학기부터 정식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ECU는 다른 선교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캠퍼스 복음화라는 사명을 위해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저희 모임의 주된 활동은 기도, 전도, 성경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서기연 동아리방에서 하는 서기연 아침기도회에 참여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마다 사범대기독교인연합 동아리 방을 빌려서 캠퍼스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번 학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나가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 1장씩 주중에 개인성경공부(PBS)를 하고 주일에 교회에 모여 조별로 흠여져서 공부했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 방학에는 다같이 2주간 수련회를 갑니다. 물론 식사교제 등

여러 교제도 틈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정기적으로 목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학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참 즐거워 보이는 모임이죠?

저희 ECU의 목표는 모든 캠퍼스 사람들이 한 번씩은 복음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통해서 모든 캠퍼스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지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부족한 모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힘은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이것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며, 저희가 하는 수고들이 비록 별 것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것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캠퍼스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 모임이 크든지 작든지 캠퍼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8)”

제가 서울대 ECU 대표로 처음 서게 된 것은 2014년, 1학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5년째 대표로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표가 되었고, 당시 1학년이었던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도 충분하지 않았고 캠퍼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해서 어리버리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마음과 소망이 생겼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모이면서 서울대를 변화시켜보자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열매들과 기도의 응답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임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ECU모임을 하면서 했던 수고들에 대해서 후회되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학생 시절에 캠퍼스를 위해

서 일할 수 있는 것에 항상 하나님과 공동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ECU모임은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어떻게든 많은 캠퍼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캠퍼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사회에 진리가 아닌 가르침들이 퍼지고, 저희 지체들도 각자 바쁜 일들과 해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다들 동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요!) 그냥 믿는 사람들과 거리 도란도란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남은 학기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ECU의 기도제목은

1.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도록.
  2. 많은 학생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들려줄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3. 모임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4. 함께하는 멤버들이 바쁜 학교 생활 중에도 지지 않고 남은 학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입니다! 저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는 기독교인 지체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자훈(건축학과 14, ECU대표)

## 선교단체 소개글 - ABSK

## ABSK 소개글



1991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모여 시작한 ABSK (Asian Baptist Student Koinonia)는 Rebekah Kim 교목님(모교 '69)의 인도로 시작한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ABSK는 "Koinonia"라는 헬라어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참된 교제를 통해 성경의 진리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성경

공부, 다양한 활동, 맛있는 음식 교제, 참된 우정을 통해 하나님, 서로, 그리고 각자에 대해 알아갑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에 와서도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소개로 ABSK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와 부모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지고 죄된 마음이 자라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주관 없이 살아온 2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고 몇몇 질문은 ABSK 간사님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질문만 던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자 답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재미없게 느껴졌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도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쓸모없고 가치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는 그런 공

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목적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런 상태로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한국 ABSK 연합으로 3박4일 동안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사흘 밤낮의 설교 말씀 내내 저는 제 죄에 대해 알아가며 찢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요5:17)라는 말씀, 결국 주님은 내가 회개할 때까지 쉬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에 회개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믿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서울대에 보내주시고, ABSK에 억지로라도 데려오신 것이 모두 태초부터 저 한 사람을 위해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던 제가 ABSK 수양회에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기적을 제 주위 사람들, 특히 서울대 학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ABSK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ABSK는 현재 미국 동부와 서부의 여러 대학, 그리고 한국에는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1학기말, 하버드 Rebekah Kim 교목님과 Daniel Cho 교목님, 그리고 MIT의 David Um 교목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미국 여러 대학 ABSK 그룹을 한국에 초대하여 한국의 ABSK 그룹과 연합으로 일반 학우들도 공감할 수 있는 성경적인 주제로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What are you living for? (2016)", "What do you value most? (2017)", "Why is

life so hard? (2018)"라는 주제들로 서로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점들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ambassador)로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저의 친구들에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이번 ABSK 포럼과 행사에 초대했을 때 인생의 목적에 목이 마르지 않고 주님께 무관심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회개로 끌고 오셨듯이 친구들도 꼭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포럼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름에는 ABSK 포럼을 통해 만난 학생들과 함께 MT와 콜로키움 등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를 통해 ABSK에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서울대 ABSK는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준회원 지원요건을 충족시켜 이번 가을학기에 준회원으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ABSK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서울대 ABSK가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과 함께 서울대학교 복음화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ABSK 구성원 각자의 간증을 담은 삶을 통해 전도를 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임상황:

저희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대 아시아연구소(101동) 417호에서 모임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성경공부도 합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전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먹고 성경공부 후에는 보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ABSK 연합으로 수양회, MT, 등산, 영화감상, 해외선교여행 등의 모임을 가집니다. ABSK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에 관심 있는 학내 구성원 누구나 환영합니다!

서홍준(건설환경공학 17, ABSK 대표)

국제예배 소개글

서울대학교회 국제예배



올해 한국 대학의 외국인유학생의 수가 14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우리 캠퍼스 곳곳에도 많은 수의 외국인 학생들이 눈에 띈다. 최근 학부생들뿐 아니라,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성장 비결을 배우기 위해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각 나라의 정부에서 우수 관료나 학자들을 선발하여 서울대 대학원에 유학생으로 파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유학생들은 대부분 공부가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자국의 고위 관료나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인재들이다.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수를 보면 2017년 현재 학사과정 196명, 석사과정 765명,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 353명이 재학 중이고, 단기 교환학생들 약 300명과 박사수료생들 등을 합하여 약 2000여명의 유학생들이 있고, 이외에도 교환교수와 박사후연구원들이 있으며,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연인원 약 3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이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 온다는 것은 5,000년 한국역사에서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기회가 된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놀랍고도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린 것이다. 서울대학교회 국제예배(SNU International Church)는 2004년부터 영어예배로 시작하여 지금은 ‘국제예배’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예배와 교제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예배에는 현재 채수권 목사(햇불재단), 토드케이디 전도사, 그리고 김병문(화학), 유상임(재료공학), 이원중(물리학) 교수를 비롯한 여러 섬김이들이 예배를 섬기고 있

다. 매 학기초마다 외국인 신입생 환영 만찬,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학기 중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또한 성경공부 및 제자양육을 통해 매년 상당수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또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도 온라인을 통해 연락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지난 십수년간의 사역을 통해 이미 수십개국의 수백명의 유학생들이 국제예배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캠퍼스내 국제예배가 속속 세워지고 있으며, 2013년 이들의 연합체인 CICA(Campus International Church Association)가 결성되었고, 현재 1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CICA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의 국제예배 소속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GSM Conference를 개최하여 올해(2018년)로 6회 째를 맞았고, 약 350명 정도의 각 캠퍼스 국제예배 소속 학생들이 2박 3일간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사역을 나누며, 또 새로운 캠퍼스 국제예배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 또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유학 중인 자국의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향후 한국 대학의 유학생들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은 대학내 국제교회회를 통한 외국인학생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창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러쉬(rush)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태16:2-3)”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 캠퍼스에 몰려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의 새 표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선교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고 새 역사를 써 나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병문 교수(화학부)

외국인 학생 특별기사

My SNU experience as a Christian



I am Nana Yaw Oppong-Yeboah, a 28-year old Ghanaian who is associated with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under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GS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I joined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Church (SNUIC) during the fall semester of 2016 which happened to be the period of my enrol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foreign Christian student in a land which has a different language, culture and belief systems, I found the church to be the only place which resonated at the same frequency I did. This facilitated me to settle down smoothly, partly because of the social support system the church had put in pla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both existing and new). Personally, I have learnt to give unconditional support to people outside of my circles as well as to demonstrate what agape love is to those people. I have had an unprecedented spiritual growth due to the teaching I have being received from SNUIC which was delivered in various forms to include but not limited to Church Service, Friday Bible Studies and small groups fellowship. SNUIC helps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enhances spiritual growth, a sense of togetherness, and a community that has each other's interest at heart. Moreover, I can say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my decision to join the SNUIC

family wa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and this has been one of the best steps I have ever taken during my illustrious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Apparently, I consider myself fortunate to have known Jesus Christ before I departed from my home country. This made my transition into the Rep. of Korea less challenging because I knew that the Lord who parted the Red Sea will make my stay a success in this foreign land. My stay here coupled with my association with SNUIC has taught me to trust in the Lord as He is able to do exceedingly and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for and can imagine.

Additionally, I wish to unequivocally say that SNUIC is the place I found love and witnessed first-hand how people I have never known or encountered showed me unconditional love and support during the course of my study at SNU. It was mind-blowing to see the extent to which Christian professors have dedicated their resources (time and money) to help advance the vision of Jesus Christ. At SNUIC, I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service to Jesus Christ transcends academic success, wealth acquisition and the quest for power and fame. Observing the qualities exhibited by these astute people, it taught me to reassess priorities and values.

I want to conclude by expressing my gratitude to my Father in heaven for being my light in this increasing strange world. I also want to thank Pastor David Chae, Prof. Moon Kim, Prof. Lee, and Prof. Yoo together with their supportive wives for the role they have been playing to advance the will of God on SNU campus. It is my prayer that God continues to crown their efforts with success.

Nana Yaw Oppong-Yeboah(Master's Student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 외국인 학생 특별기사

## 축복받은 서울대 생활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 가지구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에게서 수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7년 8월 27일에 서울대 유학생으로 처음 서울대 학교에 왔습니다. 그때 관악사 921동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온 후 그 다음날에 바로 기숙사 앞에 '서울대 중국어 예배'라고 쓰여 있던 간판을 봤는데 중국에 있을 때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국어 예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 목사님, 교수님, 사모님,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사모님께서 학생들에게 정성껏 만들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다음에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주중에도 저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주일날에만 설교를 들었고 평일에는 성경에 손을 대지도 않아서 신약과 구약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욱 깊게 알게 되어 제 신앙에

도 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 저는 서울대 수요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정말로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던 저는 매주 꾸준히 나가다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듣기 실력이 많이 늘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강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일날에 수요예배의 형제자매들은 저 몰래 케이크를 준비해 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생일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제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매일 한국어 공부 외에는 박사 신청을 준비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에 부딪칠 때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을 꺼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제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원 생활은 어학당보다 훨씬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임 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왕순강(외국어교육학과 영어전공 박사과정)



## 대학원 모임 소식

## 기독교대학원생모임 소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느꼈던 학업의 어려움과 나아지지 않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 무엇보다 저의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죄 된 본성이 저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한 선교단체 간사님의 도움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도 말씀에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일회적이 아니라 구하고 찾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수를 세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기독교대학원생모임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업도 해야 하니 학교에서까지 신앙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주말에 교회 공동체가 있고 주중에는 홀로 말씀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교만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말이건 주중이건 믿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서로 모여 교제하며 알게 하셨습니다.

또 당시 기독교대학원생모임의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머뭇머뭇하였고 웬만하면 머뭇거리러는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너나 할 것 없이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씩 그 지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한동안은 어떻게 나에게도 이러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을까 기쁜 마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니 섬길 때 부여주셨던 기쁨과 행복을 서로가 함께 누렸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섬김의 귀한 마음도 있는 반면, 서로 누가 큰지 주장하는 것, 좋은 이야기를 제안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체의 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저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모임에서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는 지체들의 모습을 봅니다. 혼자서 모두 감당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지체들이 함께하여 감사함을 느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잠 27:17)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연단되어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초 기독교대학원생모임 임원 회의를 갖으며 공휴 사역, 신앙적인 학업, 노방전도 크게 3가지를 실천해보자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회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공휴사역에 참여하기로 하고 한 목사님의 소개로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대학원들의 특성상 학업이 가장 자연스러운 신앙 활동의 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대학원생 임원의 소개로 기독교학술세계관 동역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노방전도는 아직까지 기독교대학원생모임 차원에서 진행한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꾸준히 전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독교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캠퍼스 예배 중 한 예배는 기독교수협의회에서 주관

하는 '수요열린예배'입니다. 서울대구성원 뿐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예배입니다. 현재는 찬양팀원들이 주로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비롯한 사역자분들께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이고, 찬양팀원들도 함께 기도로 동역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주중의 한 가운데 수요일 저녁을 예배로 드리니 예배가 늦게 끝나면 어찌하나 조급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도리어 기쁨이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떼어 예배에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으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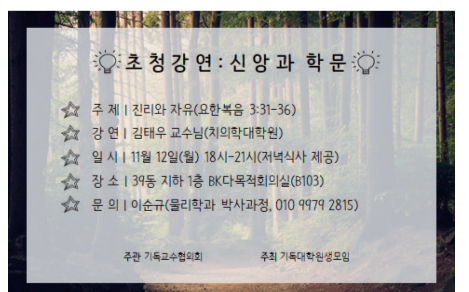
기독교대학원생모임의 정기기도모임으로는 점심기도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한번 점심시간에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위해, 캠퍼스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지체들의 기도제목들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목요일 점심에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정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침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캠퍼스 내로 파송 받으신 선교사님께서 주중의 매 아침 7시 30분부터 함께 기도하시고 QT 목상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모임 이후에는 학생회관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저는 아침기도모임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매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비취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최근에 목상하고 은혜 받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피를 흘리는 죄 만큼은 피하였습니.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선만 넘지 않았지 동생을 팔아넘김으로 죄를 통해 교묘하게 자기 이익마저 챙겼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인지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는 자신의 아들 2명을 잃고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여기에 어디 가서 한마디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가정사 또한 있었습니다.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아픔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유다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유다가 행했던 정의로운 행동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정의로운 행동은 자신의 무너져버렸던 삶의 부분에 계속하여 좌절하고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라 괴롭지만 다시 일어나 돌아보아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할 일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하는 것이 유다 뿐 아니라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모세의 부르심과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라고 주신 명령과 같이 우리도 다시 일어나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규(물리학과 박사수료)



▲ 11월 12일 저녁 6시 39동 B103호에 있었던 대학원 복음자리

2018 1. 10 이복영 장로님 장례예배 원고문

### 이복영 장로님의 삶을 추모하며



〈이복영 장로님〉

지난 93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고(故) 이복영 장로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조사의 순서를 맡은 저는 이 시간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지금부터 47년 전 1971년 8월 11일 이복영 장로님의 외아들 이용모형제가 아현감리교의 성가대 총무로 성가대의 여름수련회를 위하여 주문진에 갔다가 물에

빠진 한 자매를 구하려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장례식을 위한 발인예배가 아현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서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복영 장로님은 1924년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한 시골 마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때는 3.1 만세 사건이 지나고 겨우 5년이 되는 때여서 매우 뒤숭숭한 때였고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 캄캄한 밤 같은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소녀의 시절을 이런 환경에서 보내셨습니다. 일제 말인 1943년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 되시는 이우균 청년은 당시 휘문고보를 나온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다행이도 시댁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고 교회의 속장으로 섬기셨던 시어머니의 전도로 예수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결혼한지 채 2년도 되지 않는 때 아직 젖먹이 아들 용모와 사랑하는 부인을 남겨두고 남편 되시는 분이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빈곤과 절망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복영 장로님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몸으로 체험한 것은 이러한 고난의 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외아들 용모는 어릴 때 매우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의 최고의 명문 서울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용모 소년이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도 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 치료도 해보고,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때 회현동에서 제단을 쌓고 계셨던 대한수도원 전진 원장님을 찾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불의 체험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진동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안(靈眼)이 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지위를 보았는데 그 순간 이후 사람의 심령을 보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예수 없는 삶은 텅 빈 것, 공허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소유하여서 나는 부자 되고, 예수 한분 잃어서 나는 거지 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영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성령을 부여주신 우리 주께서 이복영 속장님을 그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후 우리 하나님께서 이복영 장로님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감사를 넘어서서 그래도 감사, 그렇다할지라도 감사하는 분으로 아주 차원 높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복영 장로님의 외아들 이용모 형제는 실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학교였던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들어올 때에도 1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공군 장교 때에는 정보특기를 받았는데 성적이 항상 선두에 섰습니다. 학문의 자세와 기초를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생각이 맑고, 생각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음악도 좋아해서 한국 남성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서울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한 모임인 문리과 대학 기독교학생회에서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가 훗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되고 한국의 영적 운동의 선두에 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이용모 형제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머니 이복영 속장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한동안 ‘왜? 어찌해서 이런 일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쳤습니다. 특히 신명기 28장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서서 고통스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은 어떻게 되는 가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네 짐승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심령이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왜? 어찌해서?’하고 이들과 가까운 모든 이들도 고통으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이복영 장로님의 영계(靈界)를 여시고 가르쳐주신 것이 ‘그래도 감사/그렇다 할지라도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복영 장로님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셨고, 불 같은 성령을 주셨고, 차원 높은 감사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종삼아 쓰셨습니다. 어느 누가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는다면 말할 분명한 대답을 얻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저는 이 시간 이복영 장로님께서 대한수도원을 통해서, 대방제단을 통해서 땅 끝에 이르러 예수의 간증자로 일하신 것이나 보라매열린교회의 장로로 섬기신 일에 대하여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저보다 더 가까운 증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소 잘 모르시는 것 한 두어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74년 11월 서울대학교가 동숭동에서 관악산 밑으로 옮길 즈음 “서울대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대학총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복영 장로님 아드님이신 이용모형제의 기도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지 석 달이 채 아니 되어 함께 했던 이들이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도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터였는데 그때 이복영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전심을 바쳐서 대학총교회 일에 관여하시고 참여하셨습니다. 교회는 안정을 찾았고 매일 25

일이면 철야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지어지고,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다. 이복영 장로님이 이 사단법인 기독교대학총교회의 이사장으로 긴 기간 맡아 섬기시며 일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선교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위한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기독교 학생 신문이 시작되고, 장학회가 만들어져 형편이 어려운 기독교생들의 면학을 돕고, 생활관을 만들어서 기독교생들의 공동생활을 통한 신앙교육을 열고, 1년 1회 선교후원의 밤을 열어 조직적인 선교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기독교생운동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독교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서울대 선교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 이복영장로님이 기독교대학총교회 이사장으로 섬기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학총교회에 이수구라는 한 형제가 40년 전, 교회 초창기에 나왔습니다.

이수구 군은 그때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할 정도로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허무 절망의 노예가 되어 어둠에 끌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복영 장로님이 아시고 이수구형제와 함께 그의 고향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충청도 서산 한 시골의 끝없이 펼쳐진 논들과 그 지역 특산물인 생강밭들 한 가운데 있었던 작은 마을에서, 그의 어머니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그때 그 마을에는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밤이면 캄캄한 어두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찾아가서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친척들을 모아 놓고 기도해주고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변화를 덧입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을 만났습니다. 후에 신학을 하고 OMF의 선교사가 되어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선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일본의 선교가 쉽지 않은데 주의 도우심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일본 선교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전역에서 일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본 선교회의 회장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한 후 정규 직장을 얻지 못하고 한 3년 동안 시간강사로 실직 비슷한 삶을 보냈는데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면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가정 기도회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호주로 상석에 모시고 대소사 모든 일들을 여쭙어 행하네.” 지금도 귤전에 생생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 근본은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 인도해주시던 가정 예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 찬송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이복영 장로님 이 땅에서 주의 종이 되어 일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셔서 사랑과 헌신으로 협력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고인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은상(대학원교회 원로장로)

### 《진리는 나의 빛》 독자 기고란

서울대학교 학부생 혹은 학내 구성원 분들의 간증 혹은 신앙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의 글 기고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글/기독교 단체 소개 및 간증 모두 괜찮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읽는 분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 줄 독자 분들의 글을 기대합니다.

문의: 한상휘 학생기자(010-9239-9307, hanhwi04@snu.ac.kr)

2018년 2학기 이모저모



▲ 지난 9월 10일 개강예배 포스터



▲ 지난 9월 10일 은혜로웠던 개강예배의 사진들.



▲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학생회관 416호에서 드려지는 서기연 아침기도회. 개교기념일엔 파riba게트에서 식교제 시간을 가졌다.



▲ 지난 9월 19-20일에 있었던 생기모의 공정무역 커피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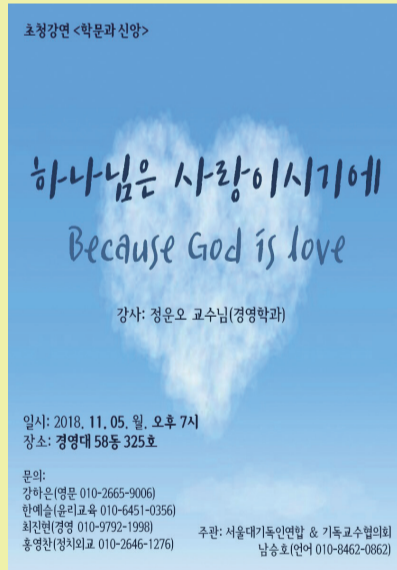
▲ 매달 한 번씩 서기연 대의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서기연을 위해 회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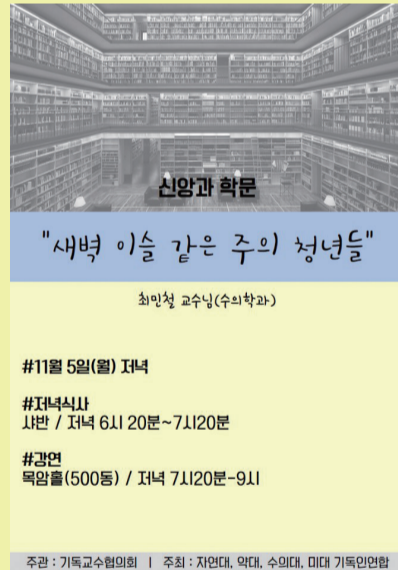
▲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서기연 중앙위원단 MT.



▲ 기독교 교수님, 감사님, 교직원, 학부모 기도회,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함께한 지난 11월 16일 서기연 연합 MT



▲ 인문대·사회대·사범대·경영대 복음자리 포스터



▲ 자연대·약대·수의대·미대 복음자리 포스터



▲ 농생대·생활대·공대·자유전공 복음자리 포스터



▲ 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인문대·사회대·사범대·경영대 복음자리 행사



▲ 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농생대·생활대·공대·자유전공 복음자리 행사



▲ 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자연대·약대·수의대·미대 복음자리 행사